

데스크 시각



김미은
여론매체부장·편집국 부국장

“하얀 반소매 아래 호리호리한 팔뚝이, 영락없이 너였다네. 네가 나한테 한번 와준 것인디,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여 줬라고 온 것인디. 늙은 내가 너를 놓쳐버렸어야(중략) 네 중학교 학생증에서 사진만 오려 갖고 지갑 속에 넣어놔다이. 하얀 슬자지도 여러번 접어 싸놓은 네 얼굴을 펼쳐 본다이. 아무도 옛들을 사람이 없지마는 가만가만 부른다이…… 동호야.”

아들 곁으로 떠난 ‘엄마’

‘소리 없는 목소리’전(6월 22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자 나지막이 들려오는 독백이 전시장을 감쌌다. 스크린을 응시하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정기현 작가의 ‘꽃 핀 쪽으로’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 중 ‘동호’ 어머니의 독백이 담긴 제 6장 ‘꽃 핀 쪽으로’를 낭독한 작품이다. ‘오징어 게임 2’의 강애심 배우와 ‘오월 어머니들’이 번갈아 책을 읽고, 영상에는 어머니들의 모습과 광주의 장소들이 등장한다.

2023년 첫선을 보인 전시는 이번에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특별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시 관람객들을 만나는 중이다. 전시는 크게 변한 게 없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 그리고 광주

들이 놓인 서가가 만들어졌고, ‘소년이 온다’ 낭독 부스를 설치해 책을 읽은 후 녹음할 수 있게 했다. 첫 전시에서 책 51페이지의, 자신의 시신을 바로보는 ‘정대’의 독백을 녹음했던 나는 이번엔 174페이지를 천천히 읽어 보았다.

“엄마 저쪽으로 가야, 이왕이면 햇빛 있는데로. (중략) 엄마야,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야. 저쪽으로 가, 꽃 핀 쪽으로.”

영상 작품의 마지막 장면인 광주전변을 걷는 엄마의 뒷모습 위로 흐르는 동호의 내레이션과 출연자 자막을 보다 멈췄했다. 박순금·김순심 두 어머니의 이름 앞에 ‘고(故)’라는 글자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작품에서 처음 등장하는 박순금 어머니는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 1980년 살레시오고교에 다니던 아들 두선이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았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95년 세상을 떠다. 김순심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다.

다시 보니 전시 리플릿에도, 벽에 부착된 작품 소개란에도 고(故)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두 엄마는 지난해 여름 한 달 사이 ‘하늘나라 아들과 남편 곁으로’ 떠났다고 한다. 그 곳에서 꿈에서도 잊지 못하던 아들을 만났을까. 전시는 변한 게 없는 게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의 뒤통까지 기억하고, 어머니의 삶도 마음에 담아야한다.

‘소년이 온다’를 만나는 전시는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도 열리고 있다. ‘소년이 온다’ 특별전(10월 19일까지)이다. 소설 속 내용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광주를 조명한 전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행방불명자 명단, 수습학생시민 어께띠, 취재 수첩과 당시를 기록한 시민들의 일기장 등의 자료를 꼼꼼히 읽는 모습, 질문하는 아이에게 차분히 설명해주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2014년 출간 후 57만부가 팔렸던 ‘소년이 온다’는 노벨상 수상 이후 120만부가 더 판매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 ‘소년이 온다’를 찾았고 소설은 최근 10년(2016~2025)간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도 선정됐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소년이 온다’가 사람들을 광주로 이끌고 있다. 이날도 잠시 들른 카페에서 ‘소년이 온다’를 읽고 있는 한 커플을 만났다. 광주시는 ‘소년의 길’ 특화 관광상품을 운영중이며 5·18 당시 부상자 치료와 자발적 헌혈이 이뤄진 상징적 장소로 2014년 폐쇄됐던 적십자병원을 5월 한달간 문을 연다. 5·18행사위원회는 17일 밤 중앙초등학교에 500동 규모의 무료 ‘오월 텐트촌’을 운영한다고 한다. 텐트 안 불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년이 온다’를 읽는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려 본다.

비상계엄 후 대통령 탄핵을 통해 다시 째깍거리던 민주와 정의의 시계가 또 한번 멈추려 한다.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 쿠데타’에 맞서 사람들은 다시 광장으로 모이는 중이다. ‘소년이 온다’가, ‘5·18’이 지켜온 가치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5·18기록관에는 관람객들이 따라 쓴 소설의 한 대목, 전시 감상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광주를 기억하며 다시 역사를 생각한다’, ‘감사하고 고맙다’ 등 인천, 포항, 서울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써 놓은 글이다. 영어와 일어도 눈에 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나는 이 글귀가 유독 마음에 남았다. 이 글을 읽은 수많은 ‘소년들’은 웃으며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됐습니다.”

21대 대선의 시대정신과 사명

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헌 등 많은 과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역사상 쿠데타가 아닌 민주선거를 통해 집권한 역대 정부의 탄생에는 그에 맞는 시대정신과 사명이 있었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정부를 완성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자 사명이었다. 그는 당선 직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사조적인 하나회를 혁파했다. 또 역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일제 잔재인 중앙청 건물을 철거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정권말기 IMF로 인해 실패한 정부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전 정부에서 물려온 IMF 극복이 시대정신이자 사명이었다. 그는 대선 4수 끝에 집권한 오랜 경륜과 준비된 대통령답게 국정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금 모으기로 국민의 마음을 모아 조기에 IMF를 극복했고 IT산업 발전 등 혁신적 국정운영으로 지금 여야 모두로부터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수도권 비대화로 제기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대정신이자 사명이었다. 그는 세종시를 만들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각 시도마다 혁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분산함으로써 수도

권 과밀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과 실용정부를 내세우며 집권했다. 기업을 위한 친 시장 정책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했으나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 외교는 투자대비 큰 성과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이 구체화 되지 못했고 통일대박을 주장하다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정책이 일관되지 못했다. 결국 국정농단으로 탄핵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는 탄핵이후 적폐 청산과 양극화 극복이 시대정신이자 사명이었다. 그러나 적폐 청산은 미완에 그쳤고 양극화 해결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중도에 전환되었다. 모법적인 코로나 방역과 남북대화로 긴장을 완화한 것은 큰 성과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집권했지만 이념에 갇혀 재임 기간 내내 야당과 반목하며 급기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탄핵에 이르렀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과 사명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추락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도자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분열된 사회를 아우르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정치, 경제를 비롯한 지역 균형, 지방소멸, 청년정책 등 제반 분야에서 실행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선거의 주인은 국민이다.

누군가를 온전히 ‘존중하는 태도’

있다는 것을. 와타나베처럼 살고 싶다는 바람은 내게 하나의 윤리가 되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쉽게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속도를 맞추어주는 것.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방식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퇴색되지 않았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지키고 싶은 방향감각이자, 내 마음속 북극성이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전부 모아 반복해 읽었다. 그의 문장은 기묘하게 고요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했고, 고독하지만 결코 절망적이지 않았다. 하루키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무수히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러나 그 고독은 어쩌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이기도 했다.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연대가 있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침묵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순간들.

나는 하루키의 문장 속에서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와타나베의 태도를 삶에 적용하려 애썼다. 말수를 줄이고, 먼저 나서지 않고,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연애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요한 협정 같은 것이니까. 서로의 고독을 인정하면서도 끝내 결을 지키는 것.

그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면, 나는 자주 하루키의 소설 문구를 인용했다. ‘봄날의 아기 곰만큼

네가 좋아!” “온 세계에 조용히 내리는 비처럼 널 그리 위해!” 언제 읽어도 참으로 달콤하고 순수한 문장들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다정하고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늘 놀라웠다. 그리고 돌아보면, ‘진절할’이란 결국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지켜내는 습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를 향한 존중을 하나의 생활양식처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와타나베가 보여준 방식이었다.

하루키의 인물들이 보여준 배려는 결코 감성적이지 않다. 그들은 때로는 차갑고, 무심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무례하지 않고, 거리감을 두되 무관심하지 않다. 이 미묘한 온도. 바로 이 균형을 나는 배우고 싶었다.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나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나를 존중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아직도 내 책 책장엔 ‘상실의 시대’가 가장 손이 잘 닿는 자리에 놓여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펼치지는 않지만, 힘들거나 길을 잃은 기분이 들 때면, 무심코 그 표지를 스쳐본다. 그러면 마치 오래전 봄날의 다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살아가자.” 누군가를 존중하고, 끝까지 들어주며,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社說

‘광주사태’라는 한덕수, 호남 입에 올리지 말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역사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호남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하는 왜곡된 역사인식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첫 지역 행보로 광주 국립 5·18민주묘역을 찾았다.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광주시민들이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저지하자 “저도 호남사람”이라며 몇차례 외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문제는 이튿날 헌정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터졌다. 5·18묘역 참배 무산 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이다.

광주사태는 전두환 신군부가 소요사태로 규정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 진상규명 과정을 거쳐 지금은 정부 공식 행사부터 5·18민주화운동으로 표기한다. 이런 데도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대통령을 하겠

다는 사람이 일부 극우 세력이 5·18을 폄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은 물론 호남인의 정서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역사인식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 전 총리는 공직에 있을 때도 출세를 위해 호남 출신임을 숨겼다가 필요하면 사용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비난을 샀다. 보수정권 시절에는 전주 출신임을 숨겼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자 비로소 공개적으로 밝힌 일화는 유명하다. 비난이 일자 “월적과 본적을 같이 쓰게 돼 있던 시기에 착오나 오해 등으로 혼동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 기회주의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더 이상 호남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 내란세력의 통치에 복무했던 사람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대선에 나온다고 하면서 5·18을 폄하하는 것은 호남은 물론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다.

‘선거개입’ 사법부 후보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야

사법부의 대통령선거 개입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 보낸 데 이어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고법도 하루만인 지난 2일 재판부를 배정하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12·3 비상계엄이후 탄핵 소추로 구속된 윤석열을 석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지만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서 노골화 되고 있다.

대법원은 소부에 회부된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고 두 번의 심의 끝에 다수결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7만쪽의 방대한 기록을 이들 만에 전자문서로 숙독했다 하고 1·2심이 엇갈리고 대법관들도 찬반으로 나뉜 사건을 9일 만에 속전속결했다. 서울고법도 통상 우편으로 보내는 피고인 출석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했다.

이런 절차와 속도는 분명 이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는 사법부가 후보들에 대한 재판을 정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속도를 높이고 있으니 표적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어제 성명을 내고 사법부 스스로 절차적 정의 원칙을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비판했겠는가.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 내려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절차 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 보인다고 직격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있다. 그런데 선거에 개입하는 결정으로 혼란을 키운다면 신뢰 상실은 말할 것도 없고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은 선거 이후로 미루길 바란다.

無等鼓

“어머니께선 여전히 나를 아이처럼 격정하신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어머니가 보내주는 음식과 편지에 감동하며 그 마음이 위로가 됐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장군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팔발과 국을 쟁겨 보내며 “입맛은 있느냐, 국은 먹고 다니느냐”를 묻곤 했다. 그 마음에 장군은 이렇게 답장을 적었다. “그 정성만으로도 눈물이 납니다…” 나라를 지키던 위대한 영웅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격정 많고 죄송한 아이였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지난 연휴 부모님 댁에 다녀왔다. 부모님은 딸을 보자마자 여전히 어릴 적처럼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어느덧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지만 당신들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딸’로 보이나 보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고 했지만 “외손녀 고기 좀 사주자”며 먼저 계산하신 아빠. 식사 후 가까운 정원을 산책하며 “이런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며 새삼 깨달은 사실이 있다. 부모님은 내 효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말이다. 그

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선물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는 걸까.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사소한 순간에도 진심은 담겨 있다. 늦은 저녁, 오늘 하루는 잘 지내셨는지 안부 인사 건네는 전화 한통, 한 번씩 찾아뵙고 함께 걷는 짧은 산책길,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국 한 그릇 만으로도 부모님은 충분히 기쁘고 감사하다고 여기신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이날 하루 마음은 멈춰난 연휴 부모님 댁에 다녀왔다. 부모님은 딸을 보자마자 여전히 어릴 적처럼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어느덧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었지만 당신들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딸’로 보이나 보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고 했지만 “외손녀 고기 좀 사주자”며 먼저 계산하신 아빠. 식사 후 가까운 정원을 산책하며 “이런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며 새삼 깨달은 사실이 있다. 부모님은 내 효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말이다. 그

서야 하는 날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감사의 표현을 이날 만큼은 의식적으로라도 해야 한다. 부모님은 기다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지만 그리움은 매일 쌓아두고 계산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인사라도, 짧은 안부라도 건네야 한다. 지난 연휴 찾아뵙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휴대전화를 꺼내보라.

/이보람 예방부 차장 boram@

기 고



신우진
광주시민인문학(협) 이사장

고등학교 1학년 새 학기를 맞이한 어느 봄날이었다. 새 교복의 뽀뽀한 촉감, 교실 창밖으로 스쳐 가던 따뜻한 바람, 어딘가 어색하고 설레는 분위기. 그런 날들 한 가운데에서 나는 운명처럼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원제: 노르웨이의 숲)를 만났다.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었다. ‘상실의 시대’ 속 와타나베 토오루를 알게 되면서였다. 그는 특별히 화려한 인물도, 특별한 재능을 지닌 인물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청년. 그러나 그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였고,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선불리 조언하거나 위로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짓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방식으로 타인의 외로움과 아픔을 맞대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매료되었다. 단숨에, 그리고 깊게. 그때 처음 깨달았다. 세상에는 거창한 목표나 성취보다도, 누군가를 온전히 ‘존중하는 태도’가 더 절실한 순간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사 업 국 220-0541	
대 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0-0195)	
문 화 부 220-0624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예 향 부 220-0692		업 무 국 220-0551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디 지 털 부 220-0697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